

남자 간호학생의 군 제대 후 복학 시 적응경험

홍 주 은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Who Return to University after Military Service

Hong, Ju-Eun

College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Yeo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explores mal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returning to school after military servi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8 male nursing students who returned from military service between 2015 and 2017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method. **Results:** From the 325 meanings obtained from the study participants, 18 themes and 5 theme clusters were identified. The 5 theme clusters were found to be "way one has to go because he is a man," "endurance despite hard work," "gazing from the highland," "different feeling of the same place," and "expectation and desire." **Conclusion:** Mal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in the army had continuous meaning in the adaptive process of them leaving from and return to the university. Therefore, interest and effort within nursing schools and universities are needed so that the military experience can be beneficial to the university life, including the male students' departure and return.

Key Words: Male students, Nursing, Military, Adaptation, Qualitative researc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역사적으로 간호는 원시시대 어머니의 보호본능과 모성에
적인 간호로부터 시작하여 중세시대 수녀들과 근대의 여집사
간호단과 같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1]. 그러나 직업
의 남녀직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여성고유의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간호직은
성별의 경계를 넘어 전문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2]. 2016년 교

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는 전
체 간호대학생 44,321명 중 8,161명으로 18.4%를 차지하여
2011년 대비 5,156명 증가와 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3].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남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유에 대하여 건강개념의 변화와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확
대[2], 그리고 사람을 돕고자 하는 본질적 요소 외에 직업의 안
정성과 경력의 보장 및 보수[4,5] 등의 외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간호
직무에 따라 오히려 남자 간호사를 선호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
의 변화와 청년 실업 및 취업난 등의 경제적 상황은 간호학과에

주요어: 남자 학생, 간호, 군대, 적응,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Hong, Ju-Eun <https://orcid.org/0000-0003-0063-8533>
College of Nursing, 145 Dongyangdae-ro, Punggi-eup, Yeongju 36040, Korea.
Tel: +82-54-630-1723, Fax: +82-54-636-8523, E-mail: nurse0413@dyu.ac.k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Program To Solve Social Issue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o. 2017R1C1B1005347).

Received: Nov 13, 2017 | Revised: Dec 27, 2017 | Accepted: Jan 18,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남자 간호학생이 급증하게 된 배경이 된다[5]. 그러나 여전히 간호학과 재학생의 남녀 비율은 여자가 월등히 높아 소수인 남학생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간호교육과정을 포함한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 특히, 국내에서 남자 중학교와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의 경우 다수의 여학생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6]을 느끼고, 군 복무로 일시적 학업중단과 복학이라는 특수한 상황[7]으로 인해 동기 및 선후배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남자 간호학생들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중압감과 이론 및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남자 간호학생들의 학교 및 학과 적응에 대한 어려움[8]을 증가시키고 학교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는 거부할 수 없는 의무이나 의과대학 남학생들의 경우는 전문연구요원이나 공보의, 군의관 등 다양한 형태로 군복무가 가능하다. 또한 의사면허시험의 탈락이나 개인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학업 도중의 휴학이 아닌 졸업 후 본인의 선택에 의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남자 간호학생들은 병원 취업 조건조차 대부분 ‘병역필 또는 면제’로 제한되어 있어 재학 중에 군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 간호학생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군대 문화에의 노출은 제대 후의 복학 및 대학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여성 편향적인 대학 환경에서의 경험 또한 군 복무 기간 중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남자 간호학생의 군 입대 전의 경험과 군인으로서의 경험 및 제대 후 복학의 경험은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졸업 및 취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 간호학생의 군 복무 이전에서부터 군복무 당시, 그리고 제대 후 복학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경험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군 제대 복학생의 경험을 입대 전부터 복학 이후의 일련과정에 따라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군대와 관련하여 남자 간호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장하고,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지원방안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군복무, 그리고 복학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군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군복무, 그리고 군 제대와 복학 이후 등 일련과정에서의 경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시행하고, Colaizzi [9]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대학의 재학생 중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남자 간호학생의 제대 후 복학경험의 본질을 탐색하였다. 총 3개의 포커스 그룹을 통해 면담하였으며 복학 당시 학년은 2학년 15명, 3학년 1명, 4학년 2명이었다. 이들 중 의무병 제대는 12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통신병, 의경, 운전병 등이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D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1041495-201612-HR03-01). 연구참여자의 모집에 있어 연구의 목적, 방법, 그리고 연구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면담이 진행되며, 면담 시 자료 누락을 막기 위해 녹음과 기록이 될 것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예상 소요시간과 면담횟수, 면담장소, 필요시 추가 자료수집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종료 후에는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연구 중이라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출판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았다. 모든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참여 중에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고, 본 연구가 종결된 이후에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을 위한 개별 심층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D대학교 간호학과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2학년 15명, 3학년 1명, 4학년 2명의 남학생들로 연구자는 모집단 전체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참여방법, 소요시간 등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 1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18명의 참여자들은 복학기간이 유사한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세 그룹을 나누었고, 각 그룹의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에 학교의 강의실 및 휴게 공간, 교수연구실 등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시기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였고, 인터뷰 횟수는 그룹별로 1~2회 이상, 각 인터뷰는 90~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최근 학교생활을 비롯한 일상경험은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서로들 간에 언제,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군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라는 도입질문과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군대에서, 그리고 군 제대 후 복학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경험을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주요 질문으로 면담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야기가 특정한 주제에 머무르거나 혹은 연구의 주제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그러한 경험은 언제 또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와 같은 전환질문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경험들에 대해서는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경험을 환기시켰으며,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등의 추적 및 탐사질문을 했다. 인터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지금 나는 이야기들 외에 추가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경험이 있다면 더 이야기 해주세요.” 등의 마무리 질문으로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질적 연구 경험과 정신건강 상담 경력을 가진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고, 참여자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수업과 시험 등의 개인적 상황을 배려하였다. 참여자들은 친밀한 동기들과의 편안한 자리에서 제시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자연스럽게 나누었고, 간혹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거나 연구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연구자들은 준비했던 질문들을 맥락에 맞게 활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음성녹음을 하였으며, 인터뷰가 종결된 후에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연구자는 각자 인터뷰 상황과 참여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브리핑 노트를 작성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에서 경험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olaizzi [9]의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연구자는 면담 상황을 떠올리면서 필사된 기술들을 반복하여 정독했고, 2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남자 간호학생의 복학 경험과 관련된 주요 진술을 325개 도출하였다. 3단계는 도출된 의미진술들을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여 91개의 하위주제로 분류함으로써 그 안에서 의미와 맥락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4단계에서는 하위 주제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면서 18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모음으로 범주화하였다. 5단계는 주제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에 초점을 두어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6단계는 남자 간호학생의 군 제대 후 복학 경험으로 확인된 주제, 주제모음 및 범주의 설명을 통해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으며, 7단계는 분석된 단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결과가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6.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

본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Guba와 Lincoln [10]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적용성(applicability)에 근거하였다. 연구자가 기술하고 분석한 결과는 일부 참여자들에게 전자우편과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선이해, 개인적 편견과 판단을 배제하였고,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1인에게 검증받음으로써 연구의 일관성(consistency)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남자 간호학생의 군 제대 후 복학 경험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여 남자 간호학생의 지도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학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지원방법 모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적용성(applicabi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7.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는 16년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의 경력을 겸한 정신간호학 교수로서 연구참여자들이 수강하

는 간호학과 전공교과목의 일부를 맡아 강의하고, 학생 개인의 정서행동 문제와 스트레스 등의 학교생활 제반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편의 질적 연구결과를 학위논문 및 학술지로 출간한 경험과 질적 연구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질적 연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찰을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 18명으로부터 얻은 원자료를 통해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은 325개였다. 이 중 유사한 의미진술을 통합하여 1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5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5개의 주제모음은 ‘남자라서 가야 하는 길’, ‘고되지만 견뎌’, ‘고지에서 바라봄’, ‘같은 자리 다른 느낌’, ‘기대와 바람’으로 도출되었다(Table 1).

주제모음 1. 남자라서 가야 하는 길

주제 1. 외로운 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10여명 남짓에 불과한 남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입대라는 국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것보다 의무병으로 지원입대 하는 것이 간호학과 전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무병에 지원해보지만

수시로 변하는 지원율로 인해 확정 가능성은 모호하며 그 결과 입대 시기조차 선택할 수 없어 결국 각자의 상황에 따라 혼자 입대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등을 내려놓으며 입대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10월 달에 딱 미달이 떠서 그 달만. 그래서 혼자 가게 됐죠. 그때는 다 이제 친해지는 시기였고, 그게 2학기 거의 10월 달에 갔으니까 한 9월 달에 발표가 나고, 이제 공부하는 손에 안 잡히고 혼자 가게 되니까 이제 혼자 2년 동안 딱 떨어지니까.(Group A)

솔직히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학점도 높게 잘 나오고 했는데, 애들이 다 가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생활이. 애들이 다 같이 있을 때가 재밌었는데... 아 자기발전. 이게 막 공부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의무병도 연달아 한 5번 떨어졌어요. ‘학교 생활 재미 없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애들이랑 같이 학교 다녀야겠다.’하는 생각이 더 커서 군대 갔던 것 같아요.(Group B)

저 같은 경우에는 못 갔던 이유가 겨울방학 때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끝날 때 까지 못 붙어서... 전 군대 가기 전에 장교하려다가 안 되서 간 게 군대라서.(Group C)

주제 2. 입대 전 추억 쌓기

참여자들은 입대를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후 친밀해진 남자 동기들끼리 단체 사진을 찍거나 어

Table 1. Categorization of Data

Theme clusters	Themes
Way one has to go because he is a 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nely road · Building memories before enlistment
Endurance despite hard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ving force of bearing · Nightmarish memory · Experience of becoming blood and flesh
Gazing from the high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y forward · Way I walked
Different feeling of the same 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e to return to school · Difficulty of giving blank time · Ambivalence · Wall with female juniors · Adapt through camaraderie · Walking together with holding hands · Gratitude for those who help · Looking back on male juniors
Expectation and des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otional support · Academic support · Administrative consideration

올려 시간을 보내는 등 그들만의 추억거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입대 시기가 늦어진 경우는 이미 군대 가 있는 친구들로부터 전화나 편지로 마음을 나누었으며 모두 즐거운 일들로 기억하고 있었다. 특별히 환송회를 열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 간호학생들만의 이러한 활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문화로 자리 잡아 해마다 입대 전 행사처럼 이어오고 있었다.

저희는 남자들끼리 00관 내려가는 나무 계단 있는데서 입대할 친구들이랑 마지막 학기 때 다 같이 남학생들끼리만 단체 사진 찍어요.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그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팝콘인가 가서 먹고 놀잖아. 그 때 진짜 재밌었지. 환송회 같은 거 안 해줘도 서운하지는 않아요.(Group B)

그때 저희가 갈 때는 애들이 다 군대 있었으니까 그리고 계급도 일병 말 상병정도 돼서 애들이 일단 많이 놀렸고요. 편지를 써도 저희는 이제 훈련병 되는데 애들은 상병 병장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며칠 남았는데 저희는 몇 백일 남았다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Group C)

주제모음 2. 고되지만 견딤

주제 1. 버팀의 원동력

참여자들은 입대하면서부터 제대할 날을 기다렸고, 전역에 대한 기대감은 포상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생활하게 만들었다. 또한 먼저 입대한 동기들도 똑같이 힘든 과정을 견뎌왔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결국 군대생활을 버티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통해 기운을 내기도 했다.

카운트는 입대하면서부터 해요. 639일부터 시작해서 찌찍 굵고, “와, 나 이것밖에 안 남았어.”하면서 맨날 계산해보고 후임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훈련소 끝날 때쯤에 “우리 이거 한 스무 번만 하면 끝난다고 했잖아. 별거 아닌데.”하면서. 내보다 밑에 있는 것(후임) 보면 그 맛에 버티는 거지.(Group B)

누구라도 치킨 들고만(오면) 누가와도 상관없어요. 바깥 얘기도 좀 듣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사회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교수님이 편지 한번 쓰자고 그러셔서 써줬거든요. 근데 면회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는 친한 친구

들만.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부담되고 그런데 편지 하나라도 받으면 진짜 힘이 많이 되거든요.(Group A)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을 제 친구들이 이미 했을 것 아니에요. ‘애들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못하겠어.’ 이런 게 힘이 많이 되요. 진짜 너무 힘든데... 잘난 거 하나 없는 애들인데 그런 게 힘이 되게 많이 되요.(Group A)

저는 기타 치기 같은 취미나 노래 듣거나 좋은 글귀 책 보거나 하면서 많이 힘이 났어요. 정 힘들다 싶으면 휴가 신청해서 나왔어요. 포상휴가는 교통비가 지급되어서 참다가 포상휴가 노리면서 살았어요. 간부들에게 칭찬을 해달라거나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어요. 힘들 때 인터넷을 찾아서 포스터 공모전 같은 것을 하면서 일과 이외의 다른 것을 하니까 해결됐어요. 그래서 포상도 받았어요. 오로지 휴가만 바라보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가장 휴가 많이 받고 전역한 사람이 됐어요.(Group C)

주제 2. 악몽 같은 기억

참여자들은 군대 조직에서 본 병사와 간부들의 행동에 실망과 부당함을 느꼈고,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건경험을 악몽 같은 기억으로 떠올렸다. 학과 전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 의무병에 지원했으나 전염병이 유행하던 때에 환자들과 같이 취급되며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으며, 간호학과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사회생활 경험이 도움 되는 것) 그 외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괜히 안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안 좋은 게 무지 많아요. 1년 9개월이 되게 헛된 것 같은 그런 기분.(Group A)

한번은 내가 의무병으로 잠시 파견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12시쯤 다른 부대 병사 한 명이 거품 물고 쓰러졌다고 해서 제가 차 몰고 바로 병원으로 빨리 달렸는데, 그 때 너무 억울한 게... 진짜 빠르게 갔는데, 거기 군대에서는 일단 자기는 피해보면 안 되니까 간부들은 혹시 몰라서. 아 “이 운전병이 운전 속도를 느리게 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선임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거 여기서 아무리 세게 밟아도 한 15분이면 빨리 가는 건데.” 그 때 저한테 간부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진짜... 진짜 눈물 나려고 한다.(Group B)

제일 화가 났던 것은 메르스가 유행했던 때라 정말 어이없는 일.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열을 재고 해야 되니까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때문에 퍼지면 안 된다고 전화로 보고하라고...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보고하라고. 저희도 사람이고 병에 걸리면 아픈 건 똑같은데. 폐렴, 결핵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저희더러 거기서 같이 자라고 그러고. 그게 저는 제일 어이없었어요.(Group C)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하니깐 당직이 아닐 경우에도 저를 깨워서 일을 시켜서, 잘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근무를 서서 잠자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어요. 일과 끝난 후에도 야간진료 할 경우가 있어서 수면 보장이 잘 안되었어요.(Group C)

주제 3. 피와 살이 된 경험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생활이 익숙해지자 나름대로 시간활용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의무병은 병사들을 상대로 직접 간호술기가 강화되는 기회가 되었고, 운전병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운전하던 때를 기분 좋은 순간으로 기억했으며, 의정은 다른 동기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편안했다고 느꼈다. 군대를 그저 힘겨운 곳이라고만 생각했으나 그곳에서 개인적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선임이나 상사로부터 인정과 포상을 받았던 경험과 사회경험을 쌓았다는 것에 뿌듯하고 만족함을 느끼기도 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계급이 높으면 깍듯이 존댓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대 간부들 중에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인내심, 참을성도 많아지고 이런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역하고 나왔는데 친구들이랑 트러블이 있어도 그냥 내가 참는 그런 참을성 같은 게 생겼어요.(Group A)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에이 나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런 생각 들고 뭘 할 때도 이런 생각이 베이스처럼 깔려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는 것 같고... 체계 잡힌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수행을 계속 평가받고 달성하는 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Group A)

저는 막내 때 위에 선임들한테 일을 다 몰아맞아서(도맡아서) 해가지고, 수액도 많이 놔 보고 소독도 많이 해 보고, 귀찮은 애들도 많이 상대해 보고 했는데,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 진짜 앞으로 간호사 일을 하면서 저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Group B)

장수말벌한테 쏘여서 쇼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군의관 이랑 같이 CPR 준비하고 AED 준비해서 갔었는데 중간에 호흡곤란이 왔다가 도중에 괜찮아졌던 간부가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 나아서 고맙다고 인사해줬어요. 크게 다치지 않고 다니는 것 보니까 좋더라고요.(Group C)

주제모음 3. 고지에서 바라봄

주제 1. 앞으로 갈 길

연구참여자들은 막상 제대일이 다가오자 복학하여 공부할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였고, 동기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과 취업으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본인은 군대에서 편한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며 아쉬워하였다. 또한 제대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군대 동기나 선임들과 소통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아 간호학과 이거 나랑 안 맞다.’ 환자를 보면서 벌써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나는 전역하고 때려 칠거다.”하고. ‘아 이게 환자들이라는 게 20대의 건장한 남자들만으로도 벽찬데, 노인 간호는 어떻게 하고, 아동 간호는 어떻게 하고’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시간이 좀 많았는데.(Group B)

이제 전역하면 4학년 동기들이 4학년이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올 것이 왔구나, 좋았던 시절은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다른 학과 애들은 진로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전역하면 학교 다니다 병원에 취업하겠지 싶었어요. 간호학과는 졸업하면 진로 폭이 넓다보니 취업걱정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이 부러워도 했어요. 간호학과여서 안 좋은 것보다 좋았던 것이 훨씬 많았어요.(Group C)

저는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괜찮아서 주변 간부들이 장교를 하라고 많이들 그랬어요. 졸업하고 시험보고 장교로 오는 것을 많이 추천해줬어요.(Group C)

주제 2. 걸어온 길

연구참여자들은 제대를 하고 난 뒤 본인의 군대생활이 얼마나 미숙했는지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선임과 다른 병사들이 피해보게 되었던 상황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의무병을 지원해서 왔으나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해 아쉬웠고, 당시 의무실을 찾던 병사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입대 전에는 간호학과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부족했으나 생각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나 때문에, 이때까지 운행 나간 선임들이랑 병사들이랑 휴가 나간 사람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징계가 열렸어. 나 하나 때문에 다 휴가 받은 사람이 20개 모아됐는데, 말년 병이 포상이랑 다 잘렸어. 징계가 열리면 포상이란 게 없어지거든. 나 때문에 휴가가 다 잘리니깐, 되게 눈치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운전 못하게 했고. 나는 인제 그 때부터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사과하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 선임들이 전역하고 나면서부터 그 때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했지. 그래도 시간은 가니까.(Group B)

병원 의무실 찾아오는 애들 중 허수는 한 80% 정도, 그런데 그만큼 진짜 그 하루를 편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간섭도 많고 하니까. 남는 시간에 이제 간부들이 가만히 안두고... 일과 시간에 그때는 하기 싫으니까. 의무반에 가서 쉬고 하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Group B)

여기 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지금 취업이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라서 지원을 했는데, 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2학년 하고 그냥 때려 쳐야겠다 하고서... 다 던지려고(군대) 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한 대학병원을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간호사가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책이랑 이런 것 통해서 다시 일단 오긴 왔는데.(Group B)

주제모음 4. 같은 자리 다른 느낌

주제 1. 복학준비

연구참여자들은 2년여 시간의 휴학을 마치고 복학을 위해 저마다 다양한 준비들을 하였다. 군인으로서의 옷을 벗고 민간인으로서의 적응을 위한 시간을 가졌고, 학교생활을 위해 먼저 복학한 동기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물질적 준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며 노력해보지만 의지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었다.

‘복학하면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는데 또 막상 잘 안돼요. 약간 민간 적응하면서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먼저 학교 다니고 있었던 00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잘 알려줘서 복학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Group C)

처음에는 주변에서 공부를 하라고 했었는데 집안 사정상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되서 5개월 동안 알바를 했어요. 공장 같은 곳에서 했어요.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도 안 나고 알바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Group C)

주제 2. 공백이 주는 힘겨움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재학생들 틈에서 소수의 복학생들이 이방인 취급받거나 소외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복학 후 달라진 교과과정으로 당황스러움을 느꼈으며 주변인들과의 관계변화로 어색함과 불편함, 배려 받지 못하는 서운함 등을 경험하였다. 즉 ‘군대에서의 공백으로 물질적, 시간적, 학업적, 관계적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적응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처음에 복학했으니까 소개해줄 줄 알았는데 소개 안 해주고 하니까 ‘왕따 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소개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게 섭섭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싶었는데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또 없는 게 개강하고 소개를 딱 한번 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수업을 듣는데 그 이후에 뭐 학과 측에서도 자리를 되게 만들어주기가 그러기엔 너무 크고, 그렇게 애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Group A)

복학했을 때 동기가 있었는데도 더 애매한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2년이란 공백이 생기니까 그래도 조금은 어색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학했을 때 동기에도 속하지 못 하고 지금 현재에 내가 복학한 학번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뭔가 어중이떠중이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Group B)

그게 또 여성이 많은 집단이고 또 소그룹화 되다보면 결국엔 또 그렇게 저희는 소그룹에 소수자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어 도 4~5명에서 그렇게 몰아버리면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그제 수가 적다는 게... 거기서 힘든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별과제 같은 것도(교수님께서) 몇 명 자유롭게 조를 정하라고 하면 여자애들은 항상 묶였던 조가 있고, 선배님들은 복학생 그룹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그 어정쩡한 남자 그룹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룹에 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별 활동

도 열심히 할 수 없게 되고 의욕도 안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Group A)

제가 요번에 성인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대상자 사정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단명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컨퍼런스를 안한지 3년이 넘었고 옛날 자료도 없어지고 해서 그런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했던 것을 이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중간 중간 계속 막히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됐어요.(Group C)

주제 3. 양가감정

연구참여자들은 복학과 관련하여 불안함과 동시에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나게 되는 설렘을 가졌고, 혼자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한편 이미 적응한 동기들의 도움을 받기 쉽다는 생각도 들었다. 복학하자마자 이론수업을 해야 했다면 실력 차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컸겠지만 실습을 먼저 하게 되어 부담감이 적었다고 생각하였다. 복학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개별 상황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양가감정을 동시에 느끼거나, 성격 차이에 따라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복학할 때 두렵지 않나? 진짜 두렵지. 난 정말 너무 오기 싫었어. 처음 올 때는 일단 낯설죠. 모르는 애들 사이에 끼는 거니까. 눈치 보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것도 싫고. 편하게 있고 싶은데, 군대는 위에서 알아서 시켜주니까. 항상 명령만 받다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밑에 다 시키면 진짜 편했는데.(Group B)

저는 오히려 복학에 대해서 미리 생각했으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번처럼 실습 기간(공백기)도 있고 방학기간(공백기)도 있으니까 개내(후배들)도 오래 쉬었던 건 마찬가지고, 실습 하면서 친해지고 실습과정에서도 많이 배우고 하니까 ‘이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Group C)

주제 4. 여자 후배와의 벽

연구참여자들은 복학 이후 대인관계 중 특히 후배들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였다. 입대 전 알고 지냈던 후배들이지만 남자와 달리 여자후배에 대해서는 선뜻 다가가기 힘들었고, 빠른 속도로 퍼지는 근거 없는 소문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했다. 개인적 성향이 강해진 후배들의 모습을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며 어린 동생 정도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타학과 후배들과 어울리는 등 나름대로의 대처방법을 선택하며 적응하였다.

저희가 복학하면 후배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초에 벽이 살짝, 그래서 친해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자 후배를 대하는 거랑 남자 후배를 대하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여자후배들한테 먼저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딱 한 행동인데 그게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면 말이 증폭기처럼 갑자기 되게 평이... 이제 제가 만약에 B라는 여자애랑 밥을 한번 먹었어요, 그러면 “선배님 누구랑 사귀세요?” 애들 “까악” 거리고. 뭔가 행동을 하기에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해요. 여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끼리 끼리 뭉치니까.(Group A)

애들이랑 어떻게 약간 미안한 마음까지도 들어요. 이런 아무것도 모르니까. (친해지려고) 먹을 것 맨날 사줘요. 우유 맨날 사줬는데 000 우유. 건축공학과에서는 복학하면 왕이죠. 근데, 우리는 여자가 많으니까. 저희끼리도 장난치는 거를 잘 못하고(눈치 보여서) 나와서 쳐요.(Group B)

저희는 3회였고, 그래서 단합이 잘 되고 선후배 사이에서도 서로 다 알고 많이 도와주면서 지냈는데, 지금은 선배인지 후배인지도 모르고 서로 욕하는 것이 많고, 인사를 안 하는 사이가 많아졌고, 인사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동기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어차피 1년 남은 거 그냥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해탈했어요. ‘어린 동생들 본다’ 생각하고 지내요.(Group C)

주제 5. 동지애로 적응

연구참여자들은 혼자라는 두려움 대신에 복학시기가 같이 함께 복학하는 동기들이 다수라는 것에 든든함을 느꼈고, 먼저 복학하여 적응한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주로 받았다. 입대 전부터 형성된 군대로 인한 동질감과 동지애가 복학 후에 더욱 다져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 같이 신청해서 복학 할 때도 다 같이 학교를 다니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있으면 같이 수업 들어가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주눅 들지 않고 애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래

서 그런 게 좋죠.(Group A)

저는 그냥 이렇게 남자들 선배들 동기들도 있는데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거 같아요. 일단 저보다 먼저 가서 경험했던 거라던가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궁금했던 거 많이 알려주고 응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Group A)

저희도 이제 측매역할이라 하면 000가 저희보다 1년 빨리 복학했으니까 000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000 주위엔 몇몇 여학생들이 있었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개네랑 그냥 한두 마디 더 말 쉬기가 편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000가 또 저한테 측매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Group A)

주제 6. 손잡고 함께 걷기

연구참여자들은 재학생들과 친밀해지고자 매사에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학업과 관계형성에 도움이 됨을 깨달았다. 수업이나 실습, 조별 과제는 재학생들과 연결되는 기회가 되었고 재학생들의 좋은 성향은 점진적으로 관계가 발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

네 저도 진짜 처음 왔을 때 의사소통(수업) 때가 되어서 이제 말했어요. 그때 처음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기회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수업 끝나고 애들끼리 다 같이 피자를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피자를 먹으면서 친해지니까 개네랑 노는 애들 이랑도 친해지고... 이러한 기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Group A)

일단은 컴퓨터를 잘 하면 조별 과제할 때 결론적으로 저희가(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좋아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돼요.(Group B)

000랑 옆집에 살고 개가 공부도 잘하기도 해서 물어보는 것에 잘 대답해주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저는 저희 조 아이들이랑 많이 친해졌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습 다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저희 조가 8명인데 2명 정도는 먼저 다가와 줬어요. 단체 생활이 다 보니까 더 편했어요.(Group C)

저는 저희 조 아이들 하는 것 보면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미 뒤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애들도 많이 도와줘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Group C)

주제 7. 도움 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

연구참여자들은 복학 후 적응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가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고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후배나

동기들이 학업과 실습, 그리고 학교생활에 도움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후배가) 다가와서 인사하고, 말 걸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저희야 완전 고맙죠.(Group B)

같이 실습하는 애들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조 아이들이 대부분 다 밝아서 좋아요.(Group C)

저희 조 아이들이랑 많이 친해졌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바뀐 내용이나 모르는 것에 대해 제가 많이 물어보면 잘 도와줘요. 아이들에게 많이 고마워요.(Group C)

주제 8. 남자후배를 돌아봄

연구참여자들은 군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뒤이어 오는 후배들을 생각하며 입대 시기나 군 생활 등에 대하여 좋은 방향을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

군대에 가는 애들이 있으면 군대에서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군대 가서 생활이 조금 편해지면 공부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수능공부 하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공부하기 괜찮아요.(Group C)

1학년 때 가는 것 보다는 2학년 마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학년에 기본간호학을 배워서 IV (정맥 주사)나 기본 처치를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해서 알고 가면 편해요. 의무학교에서 상장받기도 쉬워요. 복학도 3학년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Group C)

군대 가기 전에 개판 치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인관계든 뭐든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해 놓으면 복학하고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어서 부담감이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후회했던 것이 군대에서 공부하지 않은 것인데... 분명히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이 나지 않고 책에 보면 있을 텐데 하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공부 안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어요. 어떤 기회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저처럼 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을 알려줄 것 같아요.(Group C)

주제모음 5. 기대와 바람

주제 1. 심리적 지지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대를 위한 휴학

에서부터 제대 후 복학하기까지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휴학 당시에는 낯선 군대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컸고, 복학 이후에는 재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립감과 비교로 인한 열등감 등으로 힘들어 했다. 물론 개인의 성격과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복학생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접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교수가 적격이라고 생각하며, 심리적 지지를 기대하였다.

음. ‘전화만 받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이 고파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 얘기고 싶은... 훈련소 때 편지 한 통 안 받은 애들이 좀 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C&M(동아리) 에서라도 편지 같은 거.(Group A)

저는 복학했는데 실습도 있고 그래서인지 따로 면담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교수님 이 친구도 없고 교류가 없는 애들은 고립이 되는데, 그나마 해결 가능한 사람이 교수님인 것 같아요.(Group C)

저는 약간 시선이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살짝 무엇을 해줘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판으니깐 그렇게 혼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 하기에 따라 좌우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동료는 힘들고 교수님뿐인 것 같아요. 동료들을 본인이 단절하고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스스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Group C)

주제 2. 학업적 지지

연구참여자들은 입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학업에 소홀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만약 간호학과 재학년 때부터 학과 전공과목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입대 전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아쉬워했다. 또한 복학 후 달라진 교과과정이나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선후배들 간의 학업적 소통과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의 의미도 1, 2학년 때 미리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큘럼도 설명해주셔서 막연하게 있는 아이들에게 개념을 조금이라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학교는 그런 것들이 공식화되어서 선배가 후배에게 내려주는 족보 같은 것이 있대요. 언제는 무엇을 하고, 언제는 무엇을 하고 알려주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저희 학

교는 없다 보니 필요할 것 같아요.(Group C)

주제 3. 행정적 배려

연구참여자들은 복학 이후 교과 과정 및 학사규정의 변화로 부담감을 느꼈고, 입대 전 자신이 개설한 동아리에서 조차 제외된 상황에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을 느꼈다. 복학 이후 변화된 학교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나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과 배려를 기대하였다.

이미지도 박혀있는데 애들이랑 이야기를 할 그런 게 없었잖아요. 또 복학생의 경우 또 저희가 딱 끝난 게 아니라 예비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예비군 이런 날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갑자기 3월에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예비군하라고, 근데 실습인 거예요. 학기 초가. 그래서 빼지 못하고 그냥 아예 불참한 경우가 있거든요.(Group A)

군대 가기 전에 동아리를 몇 개 들었는데 복학하니깐 명단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서운했어요. 없는 사람 취급을... 그니까 원래 뭐 그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명단에 없으니깐 기분이 약간 좀 썩(서운) 하고 다시 참석하기가 별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일빠(1기)여서 거의 모든 게 처음에 저희한테 이루어져 있어서 동아리도 우리가 만들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명단에 없고. 그게 좀 당황스러웠어요.(Group A)

(교재가) 새로 바뀌니까 교재 값이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남는 거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Group C)

그리고 저희 학교 다닐 때랑 졸업 하려면 필수 교양인가 그걸 들어야 되는 게 또 달라져 가지고 여름방학 때 그걸 남아 가지고 듣는다고 그런 게 문제가 조금 되는 거 같아요.(Group C)

논 의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의 군 제대 후 복학에 대한 경험적 본질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5개의 주제모음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주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입대하기 전 간호학과에 입학한 때부터 제대와 복학 후 졸업하기 전까지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개인적 자기 경험을 포함하여 군대와 학교로 연결된 선후배, 교수, 학교 등을 통한 관계 및 사회적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주제모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만 19세 이상의 한국남자로서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군복무 의무를 갖게 된다. 간호사국가고시를 통해 의료인이 될 남자 간호학생들은 입대 시기와 지원 분야를 고민하다 의무병이 간호학 전공에 도움이 될 거라 여겨 지원하였고, 이는 훗날 취업을 생각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미리 겪어 보기 위해 지원했다는 연구[11]와 유사하다. 하지만 반복되는 탈락으로 인해 결국 동기들과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시기에 홀로 입대하였다. 이는 한국의 징병제도와 관련된 결과로 참여자들은 지원 과정에서 선정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 탈락으로 인한 실망과 걱정 등의 감정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입대 후 군생활의 적응[12]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입대를 앞두고 서로 다른 시기에 입대할 남자 동기들, 이미 제대하여 복학한 선배들, 그리고 아직 군대 지원조차 경험치 없는 후배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아쉬움을 달랬고 그들만의 추억을 만들었다. 여학생들이 다수인 간호학과 특성으로 남자 간호학생들은 학년간의 경계가 적고 오히려 '군대'라는 공통상황에 깊이 공감하면서 입대 전의 허전함과 서운함을 달래기에 서로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자 간호학생 선배배들의 돈독한 관계는 입대 전의 추억이 되며 군대 생활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간호학생들이 소수자로서 그들 간의 강한 결속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Putnam [13]의 결속형 사회자본이 소수집단 내 호혜 관계와 연대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타 집단에 대한 강한 배타성 및 적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남자 간호학생들의 군대와 관련된 경험은 입대 전부터 시작되고 군대생활의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남자 간호학생들 간의 결속력과 소통은 제대와 복학 후 생활에도 연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남자 간호학생들의 모임이 원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군대에서의 설움, 당황스럽고 난처함, 지휘관 및 병사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 등을 경험했고 이는 장교의 지휘력, 병사들의 윤리성 결여[14] 등과 관련되며 군 생활의 정서적인 부분을 더 힘들게 느꼈다는 연구[12]와 일치한다. 특히 복무 중인 부대에서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했던 참여자들은 그 상황을 악몽으로 떠올리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느꼈다. 군대라는 조직체계에서 신체 및 심리적 외상의 경험은 군 생활의 적응뿐만 아니라 제대 후 개인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집단 및 사회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16]. 현재 군에서는 관심병사를 위한 인성검사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주로 군 생활에서 적응의 문제가 발견된 대 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군인들의 건강수준별 서비스는 미흡하며,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중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참여자들 중 의무병은 군인으로서의 훈련과 동시에 치료인력으로서 간호장교의 업무를 보조하고 정해진 업무 이외의 시간에조차 그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데, 이는 Kang 등 [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육체적으로 힘에 부침'과 유사하다. 그리고 간호학생으로서 아직 간호장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의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군의관 및 간호장교의 지휘에 따라 역할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처럼 군 생활에서 간호학생으로서의 특징적인 경험은 주로 병사를 돌보던 의무병 출신의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고, 그 밖의 참여자들은 병사들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자신이 간호학생임을 인식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군대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크게 인식하는 참여자들이 복무 기간을 의미 없고 아까운 시간으로 여겨, 신세대 장병들이 합리주의, 감성주의 여가주의 등을 지향하고, 군대를 인생의 단절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 [17]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반면에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휴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군 생활에 임했고 결과적으로 선임이나 상사로부터 인정과 포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기억은 긍정적 경험으로 분류되었으며 군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12]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군대에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통한 자부심이나 관계 속에서의 긍정적 변화 등의 경험은 나아가 군대라는 역경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지고, 어느덧 제대일이 다가오자 입대한 순간부터 제대를 꿈꾸며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임에서 풀리는 해방감과 함께 앞으로 자신이 가야할 길과 방향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여성 다수의 집단에 소수의 남성이 유입됨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색함, 편견과 오해에 따른 저항감을 겪게 된다[18]. 즉, 군대로 인한 휴학과 복학의 과정에서 입학 당시와는 다른 적응과정이 필요함을 예견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다수의 환경과 여성성이 강하게 내재된 간호학문 및 간호교육 환경[19]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군대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진 시기에 복학과 진로에 대한 생각은 군대 밖의 세상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참여자들 중에는 의무병으로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환경과 기억들을 돌아보며 간호학과와 선택에 대하여 입대 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거나 부대 간부들이 조연해 준 직업군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반면 제대를 앞둔 동기들과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간호학과라 취업에 대한 걱정이 적어 간호학도가 아닌 동기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제대와 복학을 앞둔 시점에서 생각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깨달았고, 이는 군복무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한 결과 삶의 의미 재발견과 같은 긍정적 이득을 보인다는 연구[20-22]와 같은 맥락이다.

참여자들은 막상 제대하고 나자 이미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돌아보며 생각하였다. 군대에서의 악몽 같았던 시간이 무사히 지나감에 대한 다행감, 자신이 범한 실수와 미숙한 대처들로 인한 미안함, 의무병다운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등을 느꼈고, 비판하고 불평했던 병사와 간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즉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세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공감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심지어 군대에서 알게 된 동기나 선임, 후임들과 제대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군대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만기 전역 병사 집단이 신병 집단보다 만족감, 의사소통, 이해성 등의 ‘긍정적 대인관계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20]와 유사하다. 또한, 남자들의 군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조직 내에서 결속력을 다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이론과 실습, 그리고 졸업 전 간호사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 과정에서 군 입대로 인해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으로 복학과 관련된 적응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입대 전에 소속되었던 원래의 대학교로 돌아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 후 복학 준비를 하면서 설렘과 불안을 경험했고, 복학해서는 쉬지 않고 공부해온 재학생들과의 경쟁에 대한 긴장감과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한국 남자대학생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대학생활에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6], 2년의 공백기로 인한 수업 연계의 어려움[8] 등과 유사하며, 긴장된 학업 상황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없을 거라는 신념으로 인한 낮은 자기효능감[23]과 관련된다. 또한 여학생이 다수인 집단 속에서 남자 간호학생들은 소수라는 부담감과 이성 후배들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과 외로움을 겪었고, 적응을 위해 스스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였다. 가능한 한 여학생들 무리 속에서 주목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작은 오해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언행을 더욱 조심

하였다. 이는 남학생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연구[2]와 유사하며 간호학과 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소통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학사 일정과 겹칠 때면 본의 아니게 수업이나 실습, 기타 학과행사에 불참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복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과 학교로부터 어떠한 이해와 배려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남자 간호학생의 학교적응 장애요인이 남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교육환경이라는 연구[7]와 일치하며 학교로부터 배제되는 느낌이나 학교에 대한 낮은 소속감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연구[24]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내에서 여학생들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여학생이 대다수인 간호학과에서 남학생들이 성별로 인해 손해를 본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25]와도 유사하다. 이에 남자 간호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학습 환경의 개선과 행정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정적 경험 속에서도 복학 이후 현재까지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과 생활 전체를 돌아보며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였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응에 도움을 준 대상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는 군 복무 이후 복학한 남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끄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들의 태도가 복학 후에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고 만족해했다는 연구[8]와 일치하였다. 또한 개인의 성찰에 멈추지 않고 뒤를 이어 휴학과 입대, 제대와 복학의 경로를 걷게 될 후배들에게 더욱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이타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역경과 고통을 경험한 후에 성장하는 긍정적 변화[26]와 관련되며, 대인관계의 깊이가 역경 후 성장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27]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군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통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동기와 선후배뿐만 아니라 교수로부터 정서적 관심, 학업과 적응을 위한 실질적 도움과 지원을 기대하였다. 또한 학과 및 학교 차원에서 도움과 지원들을 생각하였고, 그것은 기대와 바람으로 표현되었다. 참여자들은 입대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어차피 군대에서 2년 가량의 공백을 갖게 될 거라 여겨 학업에 소홀하거나 학점을 포기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전공과목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입대 전의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하며 아쉬워했다. 이는

학년별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한 영향과도 관련되며 학년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다르다는 연구[4]와 유사하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연구[28]와 관련하여 군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복학 후 고립에 대해서 개인적 성향과도 관련되므로 학생들 개인에 대한 이해를 가진 지도교수와 동기 및 재학생들을 통한 멘토링 등의 지지를 기대하고 희망했다. 이는 교수나 친구를 통한 지지가 대학생활의 적응에 긍정적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29]와 같은 맥락이며, 특히 교수-학생 간의 긍정적 상호관계가 학생의 학문적 성공과 정서적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0]와도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복학생들의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및 장학금, 기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 제대 후 복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재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제대 후 남자 간호학생의 복학 경험을 근거로 하는 심리적, 학업적, 행정적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군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경험이 환경, 학업,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온전히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들의 경험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복학 학년이 다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군대와 관련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논의되었으므로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경험을 특정 시기에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군대와 관련된 일련의 경험이 참여자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며 성찰하고 동기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입대 전부터 제대와 복학에 이르기까지 군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각 시기별로 남자 간호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자 간호학생들이 군대와 관련된 과정을 겪는 동안 그들과 직접·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여학생들의 경험은 무엇이며 그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간호학과 및 대학 내에서의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입대 전부터 복학 이후의 일련과정에서 군대라는 의무복무를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찰과 성숙의 긍정적 측면까지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남자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입대 전, 군대, 제대, 복학 등의 과정에 따라 간호학과 및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ORCID

Hong, Ju-Eun

<https://orcid.org/0000-0003-0063-8533>

REFERENCES

1. Kim BH, Kim DO, Park SS, Yoon MO, Hong JE. Professional nursing concepts. Seoul: Fornurse Co.; 2017. 452 p.
2. Kim M, Cho SH, Jeon GS.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4;22(3):109-119. <https://doi.org/10.17547/kjsr.2014.22.3.109>
3.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Number of students by major category (sub-category) [Internet]. Jincheon: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7 [cited 2017 Nov 6]. Available from: http://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2&cd=1167&survSeq=2011&itemCode=01&menuId=m_010204_02_01020304&uppCd1=01020402&uppCd2=01020304&flag=B
4. Jeon HO, Yeom EY.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796-807. <https://doi.org/10.5392/JKCA.2014.14.12.796>
5. Geraldine AM, Jacqueline AD. Job satisfaction and career development of men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2014;4(3):86-93. <https://doi.org/10.5430/jnep.v4n3p86>
6. Kim JA. Affecting factors of career satisfaction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13(4):339-349. <https://doi.org/10.5392/JKCA.2013.13.04.339>
7. Kim SY. A study of attitudes toward college life among male undergraduate students who completed the military servi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16;22(2):127-156.
8. Noh HL, Kim HK, Park SH, Yang JY. Mixed method study on university adaptation experience of returning students

결론

본 연구는 군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경험의 본질적

- after the military service focused on academic, interpersonal, and career related area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5; 16(4):621-642.
9.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71 p.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10. Guba EG, Lincoln YS.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9. 296 p.
11. Kang HL, Lee JR, Park BN. The medic experiences of male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2013;14(2):122-131.
12. Jeong EK, Hah YS. The effect of ego-resiliency, social support, military life satisfaction on growth related military service in Korean.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014;32(1):53-65.
13. Putnam R.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Jeong SH, translator. Seoul: Paperroad; 2013. 712 p.
14. Worterl E, Bosch J. Strengthening moral competence: a 'train the trainer' course on military ethics. *Journal of Military Ethics*. 2011;10(1):17-35.
<https://doi.org/10.1080/15027570.2011.562372>
15. Yoo YW.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military life satisfaction.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2012;5(2):5-30.
16. Kim SW, Shin CS.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stress and military adjustment of soldi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5(7):216-227.
<https://doi.org/10.5392/JKCA.2015.15.07.216>
17. Yoon YD. Ethical orientation of advancement in psychological military strength.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012; 55(3):73-96.
18. Kim SH, Kim SY. Adaptation experiences of mal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8):113-126.
<https://doi.org/10.5762/KAIS.2016.17.8.113>
19. Chiarella M, Adrian A. Boundary violations, gender and the nature of nursing work. *Nursing Ethics*. 2014;21(3):267-277.
<https://doi.org/10.1177/0969733013493214>
20. Seo MK, Park KW, Lee KH. Changes in growth,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soldier through military service: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military hierarchy.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3;41(4):5-34.
21. Pascoe L, Edvardsson D. Benefit finding in cancer: a review of influencing factors and health outcomes.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2013;17(6):760-766.
<https://doi.org/10.1016/j.ejon.2013.03.005>
22. Tran V, Wiebe DJ, Fortenberry KT, Butler JM, Berg CA. Benefit finding, affective reactions to diabetes stress, and diabetes management among early adolescents. *Health Psychology*. 2011;30(2):212-219. <https://doi.org/10.1037/a0022378>
23.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978;1(4):139-161.
[https://doi.org/10.1016/0146-6402\(78\)90002-4](https://doi.org/10.1016/0146-6402(78)90002-4)
24. O'Keeffe P. A sense of belonging: improving student retention. *College Student Journal*. 2013;47(4):605-613.
25. Yi JH, Jang EY, Lee SM. The predictors of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ursing students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12;37(2): 12-24.
26. Zoellner LA, Rothbaum BO, Feeny NC. PTSD not an anxiety disorder? DSM committee proposal turns back the hands of time. *Depress and Anxiety*. 2011;28(10):853-856.
<https://doi.org/10.1002/da.20899>
27. Im SY, Kwon SM. The study of posttraumatic growth after relational loss: focusing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2;31(2):261-281.
28. Park JH, Jo GY. Predictors subjectives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6;27(2):511-522.
<https://doi.org/10.7465/jkdi.2016.27.2.511>
29. Bloomfield K, Diment W, O'Meara K. Nurse success: a faculty intervention to help students realize their goals. *The Journal of the Virginia Community Colleges*. 2014;19(1):57-62.
30. Scarbrough JE. Student-faculty trust and student success in pre-licensure baccalaureate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013;33(8):919-924.
<https://doi.org/10.1016/j.nedt.2012.08.006>